

# 赤字經營으로 허덕이는 日本石油業界

## 序 論

日本の石油業界が空前の 심각한 經營難에 직면하고 있다. 업계는 과거 2번에 걸친 石油危機를 경험 했지만, 이번만은 危機의 양상이 다르다. 직접적인 원인은 급격한 円貨가치의 하락 때문이나, 그 底流에는 需要의 構造的 변화, 過剩設備, 過當競争 등의 문제가 깔려 있다. 이제까지 쌓여 왔던 구조적 “弱點”이 한꺼번에 노출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收益환경이 어려움을 더해가는 가운데, 기업간의 격차도 더욱 벌어지고 있다. 특히 丸善石油을 비롯한 民族系石油会社는 살아 남기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다.

日本 石油업계의 經常赤字는 81년 상반기에 4千億~5千億円에 달할 것이라 한다. 이같은 적자는 石油업계가 경험한 적이 없는 높은 수준이다. 73년 제 1차 석유위기 때에 석유업계는 한꺼번에 4배로 오른 原油코스트를 흡수하지 못하여, 75년에는 업계 전체에서 2千2百億 円의 경상적자를 냈다. 그런데 금년 봄이후에는 이것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로 계속 적자를 내고 있다.

이 調査報告는 日本에너지 經濟研究所가 작성한 것으로서 이번의 石油業界危機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배경을 해명하여 各會員社, 各關係機關을 비롯한 國民各層을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동시에 日本 경제와 國民생활의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石油업계, 政府당국의 双方에 대해 當面한 緊急措置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책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解決方向을 제시하고 있다.

## 81년도 經營展望

### (I) 理論値推計에 대한 經營損益 予測

이연구소의 推計에 의하면, 금년 7월부터 시작한 資源에너지부에 의한 15%減産지도가 앞으로 2~3 개월 계속되고, 原油가격이 82년 3월까지 동결되어도 6월시점의 石油製品가격수준대로는 앞으로의 환율이 1달러당 평균 215円으로 약간 円貨가치가 높다해도, 石油회사에서는 9천 5백80~9천 7백80円의 經常損益赤字가 발생한다. (6월 평균인 225円으로 推計할 경우 1조 5천 4백90~1조 5천 7백억, 220円으로도 1조 5백억円정도의 赤字가 난다.)

그런데 資源에너지부의 推計에 의하면 (6월22일 발표한 「日本 石油企業의 經營狀況」), 주요 14개 石油회사의 금년 4~6월 사이의 經常損益은 1천 6백50억円이 赤字라고 한다. 현상태대로 나간다면 赤字는

累増되어갈 것이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이외의 비싼 原油에 의존하고 있는 石油회사의 경우, 負債總額이 資産總額을 상회하여 事實上 倒産에 빠지고 말 것이다.

이연구소는 81년도 전체 石油업계의 經營상태를 推計해 보았다. 이 推計의 결과는 <表1>과 같다.

### ① 推計의 主前提;

이 推計는 全石油회사에 대해 예상되는 平均稅後 공장도 價格에서 예상되는 평균 판매가격과 換差損益을 뺀 1K당 經常損益을 算出하여 이것을 총액에 반영한 것이다.

<表1>의 판매가격중 原油代金利率에서 其他경비까지의 原価分에 대해서는 實勢를 상당히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평균판매가격은 6월상순의 여러 기관의 公表値의 평균치를 채택했다. 原油代는 5월 평균 도입가격이 현재와 같은 경우(A, B 케이스), 사우디原油만 내년 1월부터 배럴당 4달러씩 인상되는 경우(C, D 케이스)의 둘로 나누었다. 換率은 7월 이후에서 평균 215円인 경우(A, C 케이스), 同 225円인 경우(B, D 케이스)의 둘로 나누었다. 石油製品의 需要量은 81년에 前年對比 5.9% 감소하는 것으로 보았다. (금년의 石油供給計劃 전망은 0.2% 증가할 것으로 봄) 기타 전체는 <表1>의註와 같다.

② 推計의 結論과 評價

① 結 論

日本 石油업계에 비교적 유리한 상태인 경우(原油價格이 동결되고, 換率이 평균 215円인 A케이스) 라도 經營損益은 1Kℓ 당 4천 7백~4천 8백円이 赤字이며 (그중 換差損은 Kℓ 당 8백30円), 石油업계 전체로는 9천 5백80~9천 8백70円이 (그중 換差損은 1천 7백억円) 赤字이다.

다음 사우디原油만 82년 1월부터 배럴당 4달러씩 인상되고 (다만 石油製品價格으로의 轉嫁는 年度内에는 없다.) 円貨가 상승할(215円) 경우(C케이스), 단위당 경상손익은 1Kℓ 당 5천 2백10~5천 3백10円이 赤字(그중 換差損은 Kℓ 당 8백 30円)이며, 石油업계 전체에서는 1조 6백60~1조 6백80억円의 赤字 (그중 환차손은 1천 7백円)가 발생한다.

또 原油價格이 동결상태라도, 円貨가치가 下落하면, 1Kℓ 당 7천 5백80~7천 6백80円의 赤字(그중 환차손은 Kℓ 당 1천 6백円), 石油업계 전체로는 1조 5천 4백90~1조 5천 7백억円의 赤字가 발생한다.

사우디原油가 인상되고, 円貨가치까지 하락하면 1Kℓ 당 8천 1백30~8천 2백30円의 赤字(그중 환차손은 1Kℓ 당 1천 6백円), 石油업계 전체로는 1조 6천 6백10~1조 6천

〈表 1〉 81年 日本石油業界의 損益推計(精製元売34社の 全油種平均)

項 目	케 이 스	單 位	註 1		註 1	
			A 케 이 스	B 케 이 스	C 케 이 스	D 케 이 스
(A) 平均 販 売 價 格 註 2		円/kℓ	66,000~ 67,000	66,000~ 67,000	66,000~ 67,000	66,000~ 67,000
原 油 C I F 註 3		달러 / 배럴	38.41	38.41	38.74	38.74
換 率		円 / 달러	216.25	223.75	216.25	223.75
円貨베이스原油CIF		円/kℓ	52,508	54,329	52,959	54,796
関 稅		"	640	640	640	640
石 油 稅		"	1,860	1,924	1,876	1,940
原 油 代 金 利 註 4		"	3,247	3,359	3,275	3,388
輸 入 優 待 金 利		"	583	602	588	608
自家燃・精製로스		"	3,118	3,225	3,145	3,253
其 他 經 費		"	7,900~ 9,000	7,900~ 9,000	7,900~ 9,000	7,900~ 9,000
(B) 販 売 原 価		"	69,856~ 70,956	71,979~ 73,079	70,383~ 71,483	72,525~ 73,625
(C) 換 差 損 益		"	△ 830	△ 1,600	△ 830	△ 1,600
單位 當 經 常 損 益 {(A) - (B) - (C)}		"	△ 4,686~△ 4,786	△ 7,579~△ 7,679	△ 5,213~△ 5,313	△ 8,125~△ 8,225
總 經 常 損 益 額		億 円	△ 9,579~△ 9,783	△ 15,492~△ 15,697	△ 10,656~△ 10,860	△ 16,608~△ 16,813
(그중換差損益)		(")	(△ 1,696)	(△ 3,271)	(△ 1,696)	(△ 3,271)
(양케이트調査結果)						
10 社 計 經 常 損 益 額		億 円	△ 3,920	△ 6,640	△ 4,080	△ 6,810
(그중換差損益)		(")	(△ 490)	(△ 1,620)	(△ 490)	(△ 1,620)

(註) 1. A케이스換率은 81/4~6 平均 220円/달러 81/7~82/3 215円/달러 原油價格 現狀凍結  
 B케이스 " " 220円/달러 " 225円/달러 " 現狀凍結  
 C케이스 " " 220円/달러 " 215円/달러 " 82/1~3  
 D케이스 " " 220円/달러 " 225円/달러 " } 사우디만 4달러/배럴 引上

2. 平均販賣價格은 82/3까지 變化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81年 5月 通関은 実績值

4. 유전스金利 81/4~6은 20%, 81/7~82/3은 18%, 国内金利는 6.75%로 했다.

사우디아라비아以外的 비싼 原油에 依存하고 있는 石油会社의 販賣原価는, 上記보다 1,500円/kℓ前後 비쌀 것으로 推定된다.

8백10억円이라는 거액의赤字가 예상된다.

사우디 이외의 비싼原油에 의존하는石油会社の 경우는 1K $\theta$  당 1천5백円전후의赤字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評 価

제2차石油危機로 인한 세계적인石油供給不安과原油價格의 대폭 상승은 80년부터石油需要의 대폭적인 감소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최근 정세는 73년의 제1차 석유위기 직후인 74, 75년의 상황과 비슷하다. 당시日本石油業계의 경영상익은 각각 7백90억円, 8백34억円이赤字였다. (환차손도 7백49억円, 1백66억원이었다)

이推計의 4가지 케이스중石油業계에 있어 가장 유리한 경우(A케이스)라도 9천5백80~9천7백80억円の經常赤字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금년 3월말의 대표적 14社の純資産(資産 마이너스負債)이 7천억円이라는 점에서(資源에너지庁의 既述公表資料), 상당수 회사의純資産이 마이너스가 되어 실질적인 도산에 빠질 것을 의미한다. 사우디原油가 상승되고,円貨가치가 하락하는 최악의 케이스(D케이스)에서는 사태는 보다 심각하게 될 것이다.

(2) 主要 10 社の業績 앙케이트調査

前記의理論値推計 외에 이연구 소에서는 별도로, 사태의 급전개에 비추어,元壳 8社,精製專業 2社를 합한 10社(石油業계전체의 總売出量の 58%를 차지한다)에 대한 앙케이트調査를 6월하순에 실시했다.

이것은理論値推計와 같이原油가격과換率변동에 대해서는 4개의 경우를 제시하고, 기타石油販売價格<表 3>,石油製品需要<表 2>,金利 등도 같은數値를 썼다.

이 결과는 <表 1>의 아랫단과 같

다. 10社에게 비교적 유리한 상황(A케이스)이라도 3천9백20억円の經常損失(그중換差損은 4백90억円), 사우디原油가 인상되지만円貨가치가 높은 경우라면 4천80억円の赤字(그중 환차손은 4백90억円),原油가격이凍結해도円貨가치가 하락하면 6천6백40억円の赤字(환차손은 1천6백20억円)가 발생하며, 4개 케이스중 최악의 경우에는 6천8백10억円の赤字(환차손은 1천6백20억円)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3) 理論値推計와 앙케이트調査의 總括

理論値推計는日本石油会社の 평균적全体像을 전망할 수 있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平均原價도 상당히實勢를 반영한 것이지만, 이 평균치에서個別企業을 총체적으로推計하는 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예를 들면會計처리기준과 기업간의 제휴관계, 고객과 유통관계, 회사와

의 去來慣行 등 각石油会社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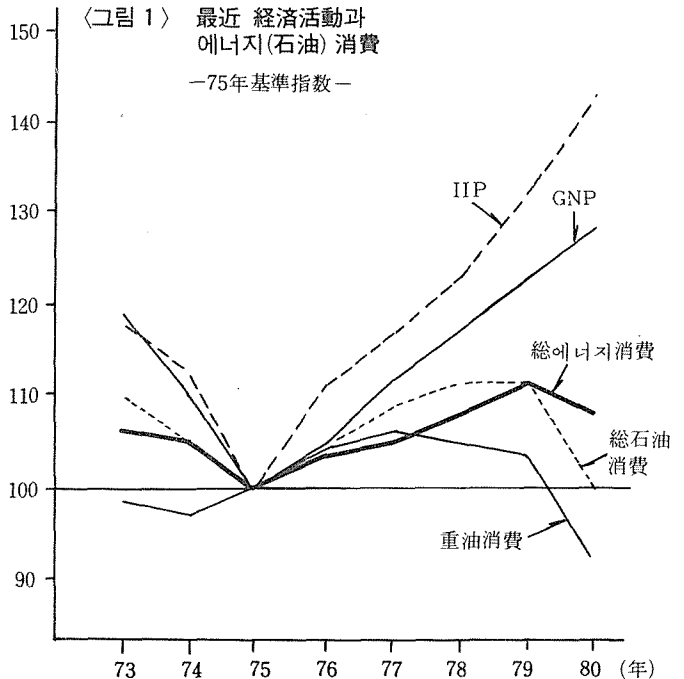
또 앙케이트조사 대상회사인 10社は石油회사 売出總量の 58%를 차지하지만,非조사기업에는推計를 곤란하게 하는前記와 같은 개별의 특수요인이 몇가지있어,推計에 障害가 되었다. 앙케이트조사는 기업 경영책임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각기업의 실태를 적절히 반영한數値라고는 볼 수 없는 요소도 있다.

2가지推計방식에는 이같이 각기 문제점이 있지만 두 방식에 의한推計値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81년日本石油業계의經營狀態는 이理論推計値로 대충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石油業界危機의 要因分析

(1) 石油需要構造의 急變

우선 최대 요인은石油需要의 감소이다.



(資料) 日本에너지-經濟研究所

□ 리포트 □

〈그림 1〉은 제 1차 석유험기 이후 日本의 경제활동을 반영한 IIP (광공업생산지수), GNP(총국민총생산)와 에너지, 석유소비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76년까지 GNP 신장율과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던 에너지소비도 77년에는 차이가 나기 시작했고 78년 이후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 2차 석유험기가 발생

한 79년부터는 에너지 특히 石油(특히 重油) 소비는 둔화내지 감소하고 있는 반면, GNP와 IIP는 순조로운 신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80년의 實質GNP는 5% 증가한데 비해 石油消費는 10% 감소했다. 에너지(특히 石油) 소비의 신장과 경제활동의 증가에는 相關關係가 보이지 않게 되어 가고 있다. 이같은 새로

운 현상을 우리는 「省에너지」(에너지消費效率의 향상), 「省石油」라고 부른다.

80년의 石油需要는 예측을 약 3천 5백만kl 下廻했다. 〈그림 2〉는 이 소비감퇴가 어느 부문에서 일어났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 「省石油」中 일반산업부분이 56%, 電力산업이 35%로 합해서 91%를 차지한

〈그림 2〉 80年 石油消費節約量과 그 要因 (單位 $10^{10}$  kcal)

〈註 1〉 〈註 2〉

全体에서  $32,693 \times 10^{10}$  kcal (石油換算 約3,500万kl) 減少

(35.1%)	電力	一次電力增 △ 6,209	水 力	△1,337 (4.1%)	構造變化	(16.0%)
			原 子 力	△4,872 (14.9%)		
		燃 料 轉 換 △ 5,280	L N G	△3,241 ( 9.9%)	一次電力增	(19.0%)
			石 炭 其 他	△2,039 ( 6.2%)		
( 4.8%)	가 스 石油精製	△ 1,561	省에너지·燃料轉換 △1,561 ( 4.8%)			
(55.5%)	産 業	△ 5,237	産業構造變化		燃料轉換	(41.2%)
			省 에 너 지			
		燃 料 轉 換 △ 8,201	프로드트·믹스의 變化		△13,481	
			코 크 스	△3,003 ( 9.2%)		에너지 프로드트· 믹스의 變化
石 炭	△2,791 ( 8.5%)					
電 力	△1,352 ( 4.1%)					
( 4.4%) (0.2%)	民 生 連 輸		其 他	△1,055 ( 3.2%)	△ 7,766	
			省에너지·節約·輸送量減 △50 (0.2%)			

〈註〉 1. 省石油量  $\Delta 32,693 (10^{10} \text{ kcal})$  은 79년의 石油消費原單位等을 그대로 固定, 79年~80年 産業活動等の 伸張率分(7.1%)에 대응하는 石油消費分을 上乘시킨 것에서 79年 石油消費実績을 뺀 것이다.  
2.  $10^{10} \text{ kcal} = \text{石油換算 } 1,080\text{K}\ell$

〈資料〉 日本에너지 一經濟研究所 에너지·밸런스表

〈表 2〉 日本 石油製品의 国内需要中間試算 (81年)

(單位: 千kl, LPG는 千톤 伸張率은 %

実績 展望 製品	80年 (実績)						81年 (供給計画)					
	上半期		下半期		計		上半期		下半期		計	
	数量	対前年伸張率	数量	対前年伸張率	数量	対前年伸張率	数量	対前年伸張率	数量	対前年伸張率	数量	対前年伸張率
휘발유	17,062	0.0	17,559	0.6	34,621	0.3	17,323	1.5	17,921	2.1	35,244	1.8
나프타	13,448	△17.9	12,850	△24.9	26,298	△21.5	13,097	△2.6	14,996	16.7	28,093	6.8
제트油	1,494	11.3	1,474	△1.9	2,968	4.3	1,504	0.7	1,616	9.6	3,120	5.1
燈油	6,417	△9.6	17,250	△1.0	23,667	3.5	6,429	0.2	18,077	4.8	24,506	3.5
輕油	10,454	△1.0	11,137	1.1	21,591	0.0	10,719	2.5	11,451	2.8	22,170	2.7
A重油	9,159	△6.3	11,966	△4.2	21,125	△5.1	9,150	△0.1	12,279	2.6	21,429	1.4
B重油	2,471	△18.7	2,773	△21.5	5,244	△20.2	1,985	△19.7	2,495	△1.0	4,480	△14.6
C重油	36,525	△14.5	37,379	△16.3	73,904	△15.4	33,429	△8.5	37,275	△0.3	70,704	△4.3
燃料油計	97,030	△10.1	112,388	△10.2	209,418	△10.2	93,636	△3.5	116,110	3.3	209,746	0.2
L P G	6,501	△1.5	7,495	△1.1	13,996	△1.3	6,657	2.3	8,007	6.8	14,664	4.8

〈참고〉 81/4 ~ 5実績(燃料油対前年伸張率) 4月 △10.2%, 5月 △20.6%

実績 展望 製品	81年 (에너지研 中間試算)					
	上半期		下半期		計	
	数量	対前年伸張率	数量	対前年伸張率	数量	対前年伸張率
휘발유	17,274	1.2	17,865	1.7	35,139	1.5
나프타	12,373	△8.0	13,778	7.2	26,151	△0.6
제트油	1,514	1.3	1,493	1.3	3,007	1.3
燈油	6,336	△1.3	17,396	0.8	23,732	0.3
輕油	10,622	1.6	11,249	1.0	21,871	1.3
A重油	8,888	△3.0	11,685	△2.3	20,573	△2.6
B重油	2,024	△18.1	2,463	△11.2	4,487	△14.4
C重油	28,969	△20.7	33,071	△11.5	62,040	△16.1
燃料油計	88,000	△9.3	109,000	△3.0	197,000	△5.9
L P G	6,631	2.0	7,870	5.0	14,501	△3.5

다. 또 이것을 주요 요인으로 구분해 보면(그림 오른쪽) 다른 에너지로의 轉換이나 利用增大에 의한 것이 60%, 産業構造의 변화에 의한 것이 16%로 되어 있어, 제 2차 석유위기에 따른 석유소비자의 진지한 대응을 반영하고 있다.

이같은 80년의 石油消費減少는 81년에도 계속되어 石油燃料油수요는 前年同月比로 4월에 10.2%, 5월에 20.6% 감소했다. 이연구소의 최근시점 石油需要展望의 中間試算을 〈表 2〉에 나타냈는데 燃料油計에서

81년은 약 6% 감소하고 있다. 특히 산업용 C重油는 16%, B重油는 14%의 감소가 예상된다. 이것은 지난 5월하순에 책정된 정부의 石油供給計劃을 대폭 하회하는 것이다.

또 수요감퇴를 반영하여 石油製品 價格도 〈表 3〉에서와 같이 혼미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 (2) 換率의 變動

다음에 지적할 수 있는 것은 換率變動이다. 〈表 4〉와 같이 美国의 高金利정책을 반영한 달러의 急騰

에 따라 円貨가치가 하락하여, 輸入原油代금이 증가하게 되었다. 円貨가 1円짜리면 1kl당 280円이라는 (当年수소의 理論推計)비싼 가격이 된다. 연간수요량을 약 2억kl로 계산하면, 하루 1억 5천 3백만円, 1년간 5백60억円の 결손이 발생한다. 최근의 이러한 円貨가치의 하락 경향은 수입석유에 99%를 의존하는 日本 石油業界의 코스트를 한꺼번에 증대시키고 있다.

〈表 5〉, 〈그림 3〉은 제 1차 석유 위기 이후의 石油업계의 경산손익과 환차손익의 관련을 살펴본 것으로, 이들의 특수한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예를들면, 77년의 이익은 바로 換差益이다. 또 78년에는 만일 換差益이 없었다면 큰 赤字가 났을 것이다. 또 79년에는 막대한 換差損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혁명에 따른 石油공급불안으로 假需要가 발생하여, 이 코스트증가분을 價格에 전가시키기 쉬운 市場환경이었기 때문에, 經常利益을 기록했던 것이다.

이런 과거의 事例중 금년과 유사한 것은 75년의 상황이다. 經常損失의 발생에 換差損까지 겹쳐, 赤字를 가중시켰는데 당시에 비교해서 原油

代가 2.4배 (75년 kℓ당 2만2천1백35円에서 81년 4월 同5만2천4백75円)오른 것으로 볼 때 그 손실액은 엄청나게 크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세계적 석유공급 불안이 발생한 79년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日本 石油업계의 損益은 換率에 의해 현저히 영향을 받는다는 특색을 갖고 있다.

### (3) 金利負担의 증가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요인은 과중한 金利負担이다. 日本 石油업계는 收益의 완전이라는 原油生産부문을 갖고 있지 못하며, 구조적으로 自己資本比率이 낮은 負債體質이다. <그림 4>와 같이 극히 빈약한 財務體質을 보이고 있다. 이 자기자본비율을 79년에서 비교하면, 석유업계는 겨우 5.4%로, 제조업 평균인 19.5%의 3割정도이다. 業績惡化가 전해지는 제지·펄프업계도 13.8%, 섬유업계도 22.7%이며, 석유화학업계의 10.7%와 비교해도 절반에 불과하다.

이같이 특히 낮은 自己資本比率은 석유수요감퇴에 따른 在庫增加에 의해 金利負担을 급증시키고 있다. 原油價가 高價化되어도 국가의 安保를 위한 石油備蓄정책에 의해 90일분은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방출하여 금리부담을 경감시킬 수도 없다. 또 수요의 감퇴를 이유로 기존 원유계약을 산유국측에 취소한다면, 앞으로의 안정공급에 지장이 생기게 되므로, 지금은 不必要해도 부채를 증가시키며 탱커備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表 1>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구입하는 原油만으로 한정해도 1kℓ당 4천円정도의 金利를 부담하고 있으며, 79년의 純支払金利은 석유업전체에서 4천3백억円이 넘었다.

負債경영은 '자전거操業'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우는데 이같이 自己自本比率의 낮음, 金利負担이 큰 것

(表 3) 日本 石油製品都売價格 (6月上旬)

(單位: 円/Kℓ, 단 LPG는 円/t)

調査 品名	A	B	C	D	平均 販売價格
휘발유 (稅後)	149,500	141,000	138,000	141,000	142,400
나프타	56,400	-	-	-	56,400
제트油	69,100	-	-	-	69,100
燈油	74,700	72,500	70,000	72,500	72,400
輕油 (稅後)	112,300	98,000	96,000	98,000	101,100
A 重油	75,200	70,500	68,500	70,500	71,200
B 重油	74,200	69,500	67,000	69,500	70,100
C 重油	55,700	55,500	59,700	55,500	56,600
L P G	90,000	-	91,000	-	90,500
合計					78,399 (稅後) 66,105

(資料) A. 日銀「物價指數年報」, B. 經濟調査会「核算資料」,  
C. 建設物價調査会「建設物價」  
D. 經濟調査会「物價版」

(表 4) 円率 推移와 石油코스트에의 影響

年月	T T S 率	石油 코스트에의 影響 (当研究所理論推計值)
81年	円/달러	円이 1円하락할 경우
1月	203.21	① 1Kℓ당 280円 欠損
2月	206.92	② 하루 1億5,300万円
3月	209.98	③ 年間 560億円
4月	216.32	(需要를 2億Kℓ로 하고)
5月	221.87	
6月	225.47	

(資料) 東京銀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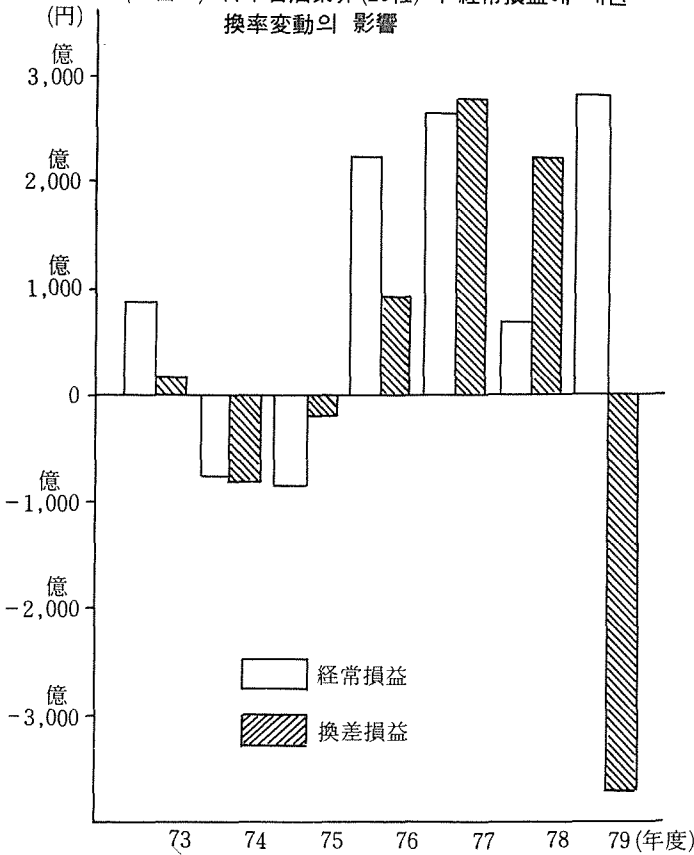
(表 5) 經常損益과 換差損益 推移

(單位: 億円)

年度	經常 損益 (A)	換差 損益 (B)	換差 損益을 제외한實態調査 (A) - (B)
73	909	134	775
74	△ 790	△ 749	△ 41
75	△ 843	△ 166	△ 677
76	2,279	986	1,293
77	2,711	2,765	△ 54
78	692	2,208	△ 1,516
79	2,737	△ 3,660	6,3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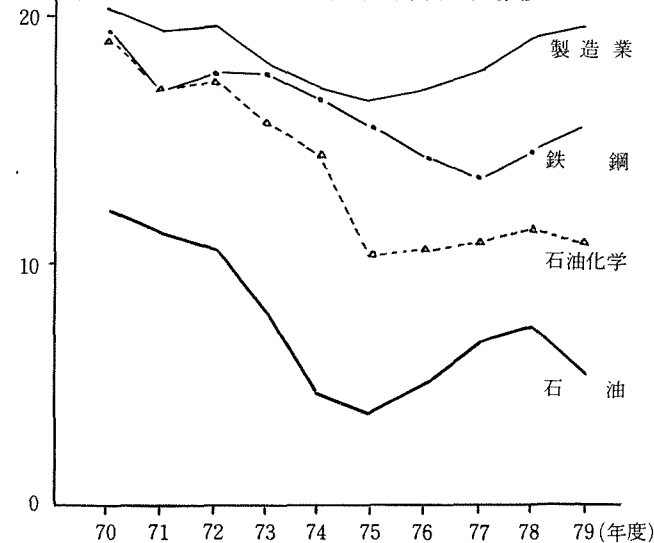
(資料) 石油連盟「石油資料月報」

(그림 3) 日本石油業界(29社)의 經常損益에 대한 換率變動의 影響



(資料) 石油連盟「石油業界의 推移」  
石油連盟「石油資料月報」

(그림 4) 日本 石油業界의 自己資本比率 推移



(註) 資本 / 負債+資本

(資料) 通産省産業政策局「日本企業의 經營分析」  
石油連盟「石油産業의 經理概況」

으로 볼때 石油産業은 日本의 대표적인 '자전거操業産業'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石油수요의 급속한下落이라는 '減速'과 石油備蓄의 확보 등의 안정공급책임이라는 '荷重'에 의해 이 중요한 '자전거' 산업은 쓰러지기 직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4) 강력한 政府介入

다음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경영악화요인은 石油業法과 行政指導의 불분명함을 배경으로 하는 政府의 市場價格에의 介入이다. 이 정책개입 때문에 OPEC原油가격의 상승이 국내 石油製品價格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石油업계 내부에 축적되고 있다.

(그림 5)는 石油製品中 대표적인 油種인 휘발유價格의 움직임을 고찰하여 비교한 것인데, 유독 日本만이 歐美諸國과 逆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80년 이후 석유제품 가격 인상의 곤란성은 업계의 과당 경쟁과 더불어 政府의 價格承認行爲 때문임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승인시기도 国会開會중이나 石油需要期에는 정치적 배려에서 지연되는 실정이다.

이밖에 74년 제 1차 석유위기 직후에 도입된 引上幅의 축소에서 보인 政府개입과 75년 12월, 휘발유는 비싸고 重油는 싼 극히 차이가 나는 石油製品價格벨런스 (標準價格) 등 ((그림 6)참조)석유업계의 財務體質을 疲弊시키는 政府개입 사례는 적지 않다.

또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서는 거액의 租稅負擔을 들수 있다. 道路財源으로 계속 증가하여 징수된 휘발유稅와 輕油稅등을 포함한 石油諸稅의 총액은 2兆9千7百億圓에 달해 國稅收入中 7.5%를 차지하여 소득세, 법인세 다음으로 제 3순위인 收入항목이다. (81년 予算)關稅, 石油稅, 앞서 말한 2가지 稅외에 石

유가스세, 항공기연료세 등 6종류의 세가 단계에 걸쳐 부과되고 있다. 이 세들은 모두 石油업계가納稅의무자로 다른 주요 산업에서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에서 石油업계의 코스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 (5) 石油業界의 體質

또 日本 石油업계의 독특한 체질을 지적할 수 있다.

즉 많은 石油제품이 동시에 제조된다는 連產品으로서의 특성과 복잡한 流通機構 등의 특성에 다른

주요 산업에서 볼 수 없는 外資系 企業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과거 OPEC 諸國을 중심으로 大量의 原油를 보유했던 外資系 石油 會社는 그 販路를 확보·확대하기 위해 日本을 포함하여 맹렬한 판매 경쟁을 전개한 시기가 있었다. 이런 경향은 石油가 저렴하게 安定供給 되고, 日本 경제가 高成長을 계속했던 시대로, 原油도입을 메이저 등의 外資系石油會社에 의존하여, 원래 빈약한 재무체질인 민족계석유회사는 그 불리한 입장을 精製設備의 우선적 취득 등 정부지원으로 커버하여, 판매경쟁에 참가했다. 그러나 판매력에 비해 과대한 精製설비를 갖춘 일부 民族系石油會社에서는 割引販賣를 실시하여 過當競争을 조장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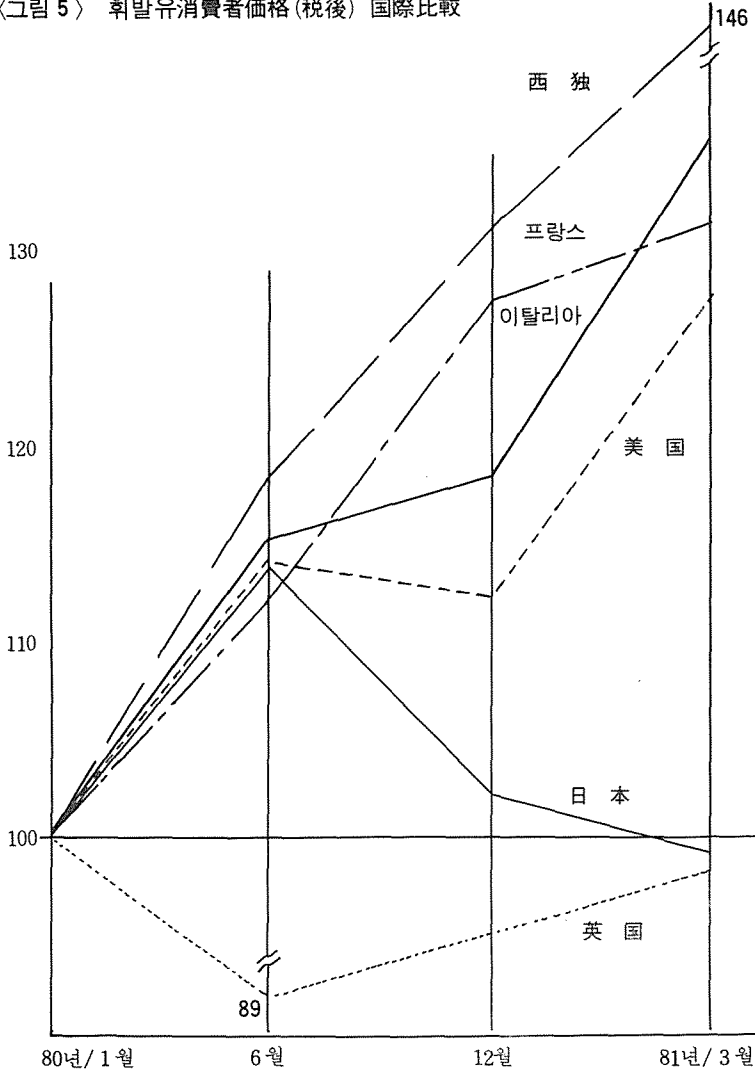
이런 실정과 빈번한 政府介入으로 인해 石油업계는 전체적으로 困窮時에는 政府에 기대는 풍토가 조성되었다.

그런데 제 2차 석유위기는 原油價格의 高騰뿐 아니라, 原油의 메이저 供給루트의 축소라는 국제석유공급구조의 변화를 가져와, 原油공급을 메이저에 의존해 왔던 민족계석유회사의 대부분은 原油確保의 脆弱性을 노출시키게 되었다.

이같이 취약한 원유공급력이 표면화 되자 高價의 原油라도 확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약한 민족계석유회사는 한층 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또 최근 OPEC 諸國의 분열된 價格政策(사우디原油만 싸고, 다른 것은 비쌌)에 의해 사우디原油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石油회사와 그렇지 않은 석유회사(日本 석유공급에 2/3를 차지한다) 사이에는 導入 原油코스트에 큰 격차가 벌어지는 새로운 사태가 발생하여 企業間格差를 더욱 증대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그림 5) 휘발유消費者價格(稅後) 國際比較



(註) 80년 1월의 레풀러級 價格을 100으로 하는 指數, 프랑스, 이탈리아는 政府發表上限價格, 日本은 東京都內現金壳價格.

(資料) CIA「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al Review」  
東京都生活文化局調査月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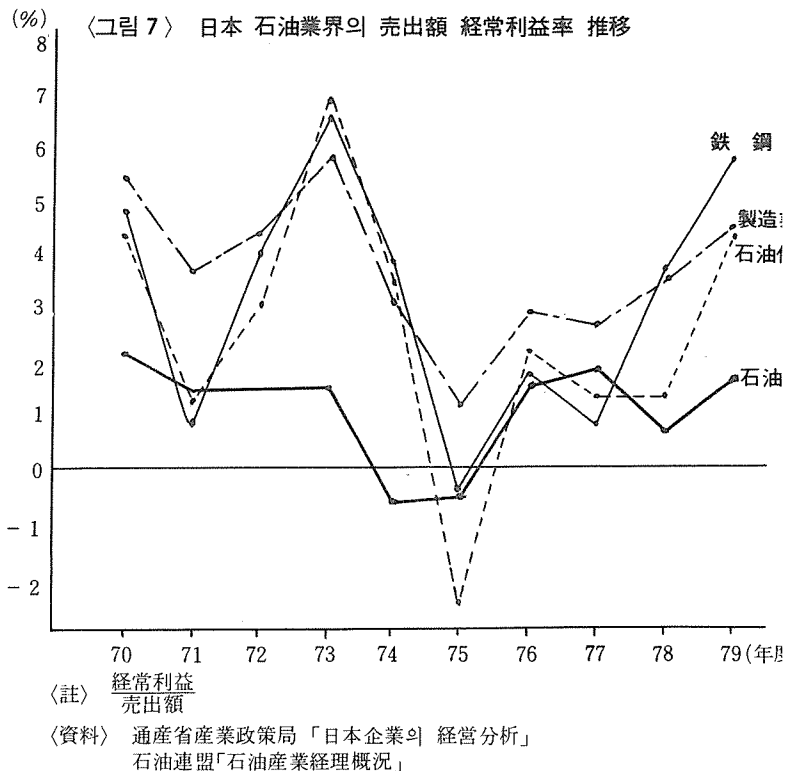


### (6) 극도로 낮은 収益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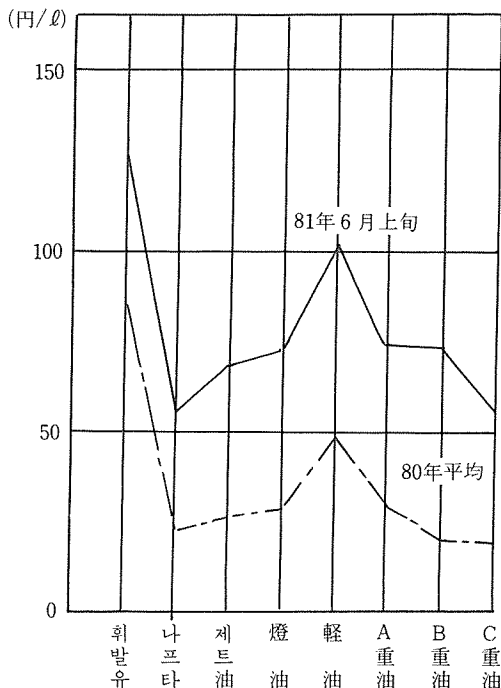
이런 諸要因외에 日本 石油업계의 취약한 經營內容도 한 요인으로 들 수 있다. 그 결과 <그림 7>과 같이 売出額經營利益率을 석유업계의 収益이 비교적 양호한 79년으로 他産業과 비교해보면, 일반 製造業이 4.5%인데 비해 겨우 1.4%에 불과하다. 다른 年度를 보아도 항상 낮은 수준이다.

또 <그림 8>과 같이 石油업계의 79년 売出額은 20兆円을 넘는 巨大産業의 외모를 갖고 있지만, 이들 全石油회사의 總利益額은 2천 7백 37억円에 불과하여, 新日鉄 1社の 1천 9백 35억円, 토요타自工 1社の 2천 2억円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78년의 경우 全石油회사에서 6백 92억円의 이익을 낸데 비해 토요타自工 1社에서 2천 4억円의 이익을 기록했다.

<그림 7> 日本 石油業界의 売出額 經常利益率 推移



<그림 6> 2 차례의 石油危機後 日本石油製品 都売價格体系 (稅後)의 변화



(資料) 日銀「物價指數年報」

### ‘標準價格’ 設定의 문제점

石油업계의 經營危機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진 이상 行政介入에 의한 緊急救濟措置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15% 減産이 7월 이후에도 계속 되어 가을 이후의 需要期에도 市況이 활발치 못하다 하더라도, 연간 판매량은 前述한 바와 같이 石油供給 計劃의 전망을 대폭 회피할 것은 틀림없으므로, 加급적이면 石油業에

의거하여 ‘標準價格’을 설정해서 적정한 引上을 단행하지 않으면, 이번 經營危機를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때에는 4월 이후의 급격한 円貨가치하락과 5월 引上時 미달 성분에 의한 현재까지의 累積赤字가 이미 막대한 額에 달하고 있는 점을 배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換率變動對策은 시급한 과제이다.

### 中·長期的인 改善策

石油製品 減産과 ‘標準價格’ 설정은 어디까지나 긴급방편이며, 石油업계의 불황→행정개입에 의존→체질약화→불황이라는 악순환을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중·장기 개선책이 필수불가결하다.

(1) 改善策의 기본목표 (市場메커니즘에 의한 건전한 體質)

石油은 日本의 총에너지공급중 약 70%를 차지하며 90년대중반이후에도 50%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국제석유정세는 점점 불투명하여 장기적으로는 供給不安과 價格上昇이 계속될 것이다. 日本의 석유업계는 그정도의 需要增大는 기대할 수 없는 전망이므로 한편으로는 需要의 輕質化에 대응하기 위한

設備投資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國民經濟·生活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石油의 안정공급을 유지하는 사회적 책임을 안고 있다. 이런 重責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市場에 커니즘에 의한 적정한 競争을 통해 건전한 경영을 할 수 있는 산업으로 體質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2) 政府介入시스템의 근본적 改革

緊急방편에 의해 현재의 危機를 넘긴 후에는 즉시 장기적 시점에서 業界體質의 改善·強化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石油業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실질적으로는 規制緩和의 방향으로)함과 동시에 價格體系의 시정, 石油諸稅의 재검토, 換差損益대책, 정부·민간 備蓄대책, 重質油대책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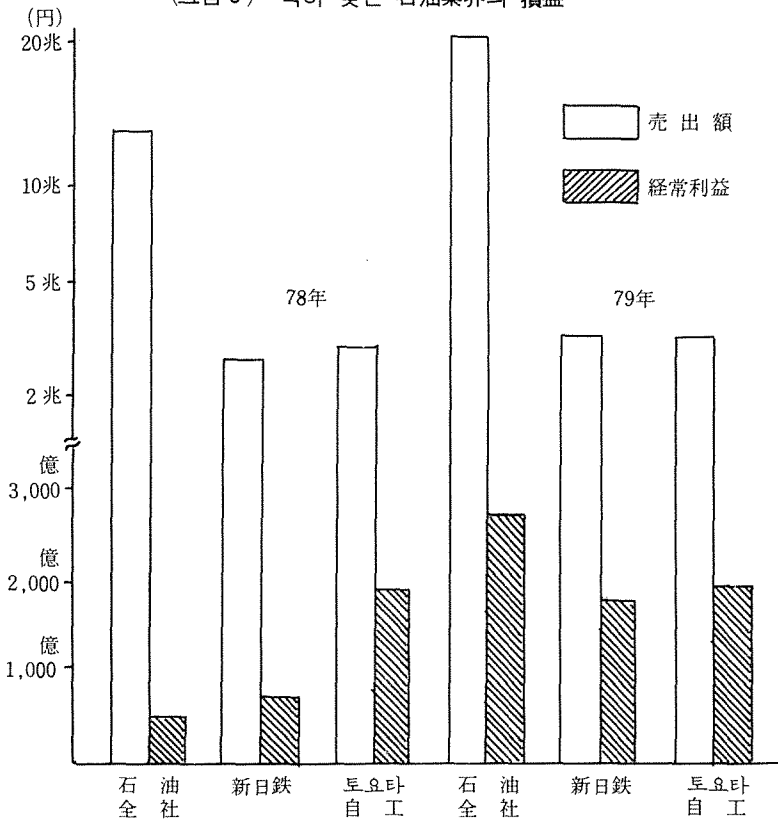
## (3) 業界의 自立努力

그러나 以上과 같은 새로운 産業體制의 確立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石油업계의 自立努力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그것이 강력히 발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石油업계는 ①과당경쟁의 반복에 의해 업계의 體質을 약화시켜온 것을 엄숙히 자숙하고 ②人員의 적정배치, 剩餘설비의 폐기, 非効率스탠드와 不要不急한 부동산의 정리 매각 등 減量經營을 하여 合理化 노력을 보여주고 ③政府介入에 안이하게 의존했던 것을 반성하고, 지속적인 業界再編성과 제휴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전한 석유산업의 확립을 위한 비전과 方策을 검토할 「長期戰略委員會」(가칭)를 조속히 발족시킬 필요가 있다. (아도적 조치로 剩餘精製설비의 政府買入 등 조성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資料提供〉(財)日本에너지經濟研究所

〈그림 8〉 특히 낮은 石油業界의 損益



(資料) 通産省産業政策局「日本企業の 経営分析」  
石油連盟「石油資料月報」